

중국대륙과 전세계 대법제자들이 법륜공 사부님께 드리는 년하장

2008 년 새해를 맞으며 “명혜망”에서 중국 국무원과 그 소속의 각 부급에서 일하는 대법제자, 그리고 중국의 각 공안, 법관, 해군, 공군계통과 중국과학원, 북경공안계통, 북경고등학교, 국가전력계통에서 일하는 모든 대법제자들, 그리고 해외 전세계각국에 있는 대법제자들이 새해를 맞으며 대법사부님께 드리는 각종 새해축하 년하장, 축하의 글, 축하 시, 그림동영상을 만들어 대법수련의 올바른 믿음과 사부님에 대한 존경, 그리고 더욱더 “진선인”의 대법표준에 맞게 수련에 정진하고 중공에 독해된 중생들에게 진상을 알려 독해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도록 혼신을 다할 것을 표달했다. 그중 몇 편의 년하장을 아래에 소개한다.



료녕호로도 대법제자 드림



호남장사시 전체대법제자 드림

“3 퇴-탈당, 탈단, 탈대” 조류와 중공의 해체

2004 년 11 월에 “9 평”이 세상에 발표되자 잇따라 “3 퇴”조류가 일어났다. 이는 한낱 정신 각성운동으로써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 고급관리에 이르기까지, 군대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점차 사악하고 부패한 중공의 본질을 인식하고 중공의 질곡을 타파하고 중화의 신전문화(神傳文化)를 부흥시키고 “인(仁), 의(義), 례(禮), 지(智), 신(信)”의 가치관(价值观)을 다시 세우며 선악시비(善惡事非)를 분별하며 하늘을 존경하는 신불교육을 되살리는 것이다.

지금 당성이 동요되고 인심이 변화되고 군심이 흩어지고 사람들은 실말을 하기 시작하여 사악을 폭로하고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고 있다. 매년 폭력항의사건이 10 만여건이나 발생했으며 정의를 주장하는 민주인사들도 침묵을 깨뜨리고 공개서한을 써서 민주자유를 요구하고 파룬궁박해를 정지할것을 항의했으며 진정한 올림픽정신을 체현한 “인권성화”는 전세계에 정의와 량심을 전달하고 있으며 민주인사들은 “중국과도정부”성립선언을 선포했다.

“3 퇴”조류에 대해 공포에 떨고 있는 중공은 워낙 싸움하기 좋아하지만 서빨리 반박했다간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본질을 알게 될가봐 두려워 일언반구도 못하고 단지 암암리에 소식을 봉쇄하고 있을뿐이었다. 중공은 선후로 “선진확보”, “정풍”으로 멸망의 운명을 만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물은 배를 띄울수도 있고 뒤엎을 수도 있다.”는 옛사람의 교훈이 있다. 지금 중공적선(贼船)이 “3 퇴”조류속에 침몰되고 있는 현실로 되고 있다.



중공적선이 침몰되고 있는데 당신은 아직도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3000 만 민중의 퇴당을 경축



2007 년 12 월 29 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정부광장에 모인 수백명 인사들로 구성된 시위행진대오가 샌프란시스코시정부앞광장부터 시작하여 변화한 상업거리를 지나 중국성까지 왔다. 나중엔 화원각에서 집회를 열어 3000 만 중국민중의 퇴당을 경축했다.

캐나다 5 개 도시에서 3000 만 중국민중의 각성을 경축



2008 년 신년초, 캐나다 오타와,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애더몬턴 다섯 도시에서 연합하여 3000 만 퇴당성원활동을 벌렸다.

학교에서 쫓겨난 조예

2007 년 12 월 16 일, 흑룡강농간관리국 목단강분국 고급중학교에서 전체 5000 명 고중생들에게 집체입당할 것을 요구하고 입당신청서를 발급했다. 고중 2 학년 1 반 녀학생 조예(曹蕊)는 “3 퇴”진상을 동학들에게 이야기 했다는 리유로 12 월 9 일 저녁, 학교에서는 경찰들을 동원하여 그를 학교에서 쫓아냈다.



홍콩법회가 성공적으로 거행

2007 년 홍콩파룬궁심득교류회가 지난 12 월 29 일 홍콩에서 성대히 열렸다. 아시아 각 나라와 오스트랄리아, 중국대륙파룬궁학원도합 1000 여명이 법회에 참가하였다.

아래 사진은 법회에 참가한 대법제자들이 빅도리아공원에서 단체 련공하면서 “쩐(真), 싘(善), 런(忍)” 세 글자를 새긴 장면이다.



비바람속에서 견지

2007 년 12 월 29 일, 북유럽의 파룬따파 수련자들이 모여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주재 중국대사관 앞에 모여 촛불을 들고 정좌(靜坐)하면서 파룬따파를 참혹하게 박해한 중공 악당에 대해 탄압을 중단할 것을 항의했다. (아래사진 참조)

오후 2 시, 황혼이 깃들자 가느다란 비가 내리면서 찬바람이 불어쳤지만 그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만약 박해가 결속되지 않는다면 파룬따파수련자들의 평화적인 반박해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퇴당, 퇴단, 퇴대방법 (퇴당성명은 필명, 가명으로 해도 됨)

- * Email 로 성명발표 tdsc01@epochtimes.com
- * 동태망에 들어가 tdsc01@epochtimes.com 에 련결하기.
- * 퇴당전화: 1-800-886-0070; 1-800-186-0070 전용팩스(传真): 001-702-248-0599
- * 잠시 여건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 공중장소에 큰 글씨로 탈당성명을 써서 붙여도 된다.